

WKBL 1차 FA 대상자 5명 잔류



안혜지

女 농구 최대어 안혜지
최고 대우로 BNK 잔류

4년간 연봉 3억...2차 대상자 협상 개시

부산 BNK 썸이 여자프로농구 최고 대우로 안혜지(23·164cm)와 재계약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차 자유계약선수(FA) 대상자(7명)의 원 소속구단 협상 마감일인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1차 FA 대상자 중 최대어로 꼽힌 안혜지는 리그 최고 대우(연봉 3억 원)로 BNK와 사인했다. 계약기간은 4년이다.

안혜지는 2019~2020시즌 정규리그에서 국내선수 공헌도 3위에 올랐고, 어시스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호성적을 거둬 7명의 1차 FA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안혜지가 시장에 뛰어들면 많은 팀들이 영입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BNK와 인연을 더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청주 KB스타즈는 식스맨으로 알토란같은 활약을 선보인 김민정(26·181cm)을 붙잡았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김민정은 2018~2019시즌 KB스타즈가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전천후 포워드다. 2019~2020시즌에는 식스우먼상을 수상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은 그의 선택은 KB스타즈 잔류였다.

부천 하나은행은 가드 강계리(27·164cm), 센터 이정현(28·187cm)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포워드 이수연(29·176cm)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용인 삼성생명엔 포워드 김한비(26·180cm)와 재계약했지만 포워드 양인영(25·184cm)은 붙잡지 못했다. 이수연과 양인영은 16일부터 타 구단과 FA 협상을 시작한다.

한편 박해진(30·178cm), 김정은(33·180cm·이상 아산 우리은행), 심성영(28·165cm·KB스타즈), 박하나(30·176cm·삼성생명) 등이 포함된 2차 FA 대상자 9명은 25일까지 6개 구단 전체와 협상을 이어간다. 몇몇 선수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9명 중 공식적으로 계약을 발표한 선수는 한 명도 없다. 특히 주목 받는 박해진은 고향 부산에 머물며 여러 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마침내 등친 이재영·이다영 자매, 나란히 흥국생명 FA 계약

흥행보장 ‘쌍둥이’...흥국생명에 흥 더한다

이재영 6억 잔류·이다영 4억 영입
전력 향상+티켓 파워 시너지 기대
한 팀에서 호흡...대표팀도 긍정적

한국여자배구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다영(이상 24)이 V리그 흥국생명에서 함께 뛰는 실력과 끼를 겸비한 둘은 손을 맞잡고 코트 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프로무대에서도 한 가족이 됐다. 생애 첫 자유계약(FA) 권리를 얻은 자매는 같은 곳을 바라봤다. ‘핑크 폭격기’라는 별칭과 함께 토종 에이스로 활약한 이재영이 총액 6억 원(연봉 4억 원·옵션 2억 원)의 조건으로 흥국생명에 잔류했고, 리그를 대표하는 세터로 거듭난 이다영이 총액 4억 원(연봉 3억 원·옵션 1억 원)에 등지를 옮겼다. “한 팀에서 뛰고 싶다”던 꿈을 이룬 둘은 선명여고 졸업 이후 6년 만에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

구단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인 FA 계약을 이끌어냈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이재영을 붙잡은 한편 이다영을 영입해 핵심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지웠다. 세터 포지션은 흥국생명의 오랜 불안요소였다. 조송화를 주전 세터로 공들여 육성했지만, 발전속도가 더더 큰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제 국가대표 주전 세터로 기량을 꽃피운 이다영을 데려오면서 흥국생명은 한결 세련된 경기운영뿐만 아니라 주 공격수인 이재영과의 활발한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기구단으로 입지를 굳힐 기회도 열렸다. 흥국생명은 2019~2020시즌 여자부 흥행의 중심에 있었다. 해당 시즌 여



‘흥’이 넘치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왼쪽), 이다영이 V리그 흥국생명에서 한술밥을 먹는다. 생애 첫 FA 권리를 행사해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둘은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여자부 최고의 흥행 카드로서 새 시즌 흥국생명의 돌풍을 이끌 전망이다.

사진제공 | 흥국생명

자부 최다관중 상위 5개 경기 중 3경기에 포함돼 있을 만큼 배구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모두 관중수 4000명을 거뜬히 넘겼다. 더욱이 이재영과 이다영의 맞대결은 ‘쌍둥이 매치’로 거듭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확실한 티켓 파워를 지닌 둘을 나란히 전 흥국생명은 새 시즌 만원 관중이 들어찬 홈구장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다.

대표팀도 주축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의 결합이 유독 반갑다. 이재영은 주장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의 공격을 양분하고 있다. 코트 위 사령관인 이다영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표팀은 국제대회 때마다 부족한 합숙훈련 기간에 애를 먹었다.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영과 이다영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동

일한 전략 아래 움직이는 한 팀에서 끈끈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은 대표팀 차원에서 긍정적 요소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특유의 ‘흥’으로 뽕뽕 뭉친 쌍둥이 스타는 V리그에 더욱 커다란 즐거움을 안길 전망이다.

서다형 기자 seody3062@donga.com

‘쌍둥이 계약’이 불 지핀 V리그 FA 전쟁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우리카드, MVP 나경복 잔류 발표
도로공사도 박정아와 재계약 밝혀
이다영 이적으로 세터들 연쇄 이동

2020년 V리그 FA 전쟁이 시작됐다.

모든 전쟁은 개전 초기 며칠 사이 총력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꾸준히 전쟁을 대비해온 측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다. 사전접촉 금지라는 규정은 있지만 구단과 선수들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다.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뒤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사실상 전격적 계약은 없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9년부터 원소속구단과의 우선협상기간을 포함한 1~3차 협상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협상기간도 대폭 줄였다. 이번에는 10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그동안은 대어급이 먼저 움직이거나 결정된 뒤에야 나머지 선수들의 계약이 발표되는 게 관례였다. 2년 전 현대캐피탈은 원소속구단 한국전력과의 협상기간이 끝나자마자 밤 12시에 진천선수촌을 찾아가 전광인과의 차 안에서 계약했다. 3년 전 도로공사도 국제대회에 나가려던 박정아를 공항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 이적을 확정지었다.

10일 막을 올린 2020년 FA 전쟁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팀은 흥국생명이었다. 14일 오전 예상대로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과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영은 연봉 4억 원+옵션 2억 원, 이다영은 연봉 3억 원+옵션 1억 원의 조건이다. 3년간 총액으로 각각 18억 원, 12억 원이다.

이번 FA 전쟁의 첫 번째 오프셜 뉴스가 발표되자 14일 오후에는 남자부 1위 팀 우리카드도 보도자료를 냈다. 2020시즌 MVP 나경복의 잔류를 발표했다. 연봉 4억 5000



박정아

나경복

만 원, 3년 총액 13억 5000만 원의 조건이다.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옵션 캡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옵션이 있어도 발휘 필요가 없다.

계약을 확인해준 구단도 있다. 도로공사는 “박정아와 계약했다. 구체적 조건은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3번째 오프셜 뉴스다.

구단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비공식 뉴스도 많다. 이다영의 선택으로 세터들의 연쇄이동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대로 흥국생명의 조송화는 IBK기업은행으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결정으로 IBK기업은

행의 주전 세터였던 이나영의 위치가 애매모호해졌다. 이다영이 빠져나가 주전 세터가 필요한 현대건설이나 도로공사에서 타내는 카드다.

세대교체를 꾀하는 도로공사는 문정원, 전새안 등 2명의 집토끼를 잔류시켰다. 김해란(흥국생명)의 은퇴 선언으로 리베로가 귀해진 FA 시장에서 몸값이 상승하던 KGC인삼공사 오지영은 잔류를 결정했다는 뉴스도 있다. 오지영은 리베로 불안증세로 시즌 내내 고민했던 IBK기업은행이 눈독을 들여왔다. 염혜선, 한송이도 인삼공사에 잔류한다. 구단이 총력전으로 나서 몇몇 팀에서 공을 들이던 염혜선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캐피탈 박주형, 한국전력 오재성도 팀에 잔류하기로 했다. 보상선수 없는 B등급이어서 몇몇 구단이 탕탈했지만 원소속구단이 미리 손을 썼다. OK저축은행이 레프트 보강을 위해 바베 움직이는 눈치인데 아직은 빈손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KCC 송교창·유현준의 ‘주농야독’

KCC, 경희사이버대와 협약 유지
시즌 초기 종료로 학업에 더 열중

프로스포츠 각 팀에선 선수들의 군복무 연기를 위한 대학교·대학원 등록이 필수다. 이는 군복무 연기를 위한 형식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시간을 쪼개 수업에 참여하는 선수는 드물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선수도 있다.

프로농구 전주 KCC의 경우 선수 관리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학협동 협

약서를 체결했다. 입학금 면제, 수업료 30% 할인 등의 혜택이 따른다.

KCC 구단 관계자는 “훈련이나 시즌을 소화하는 중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종목 선수들 대다수가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 측에서 꺼리기도 했다. 다행히 (경희사이버대에서) 이해를 해줘서 지금까지 협약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KCC 송교창(24)과 유현준(23)은 학업에 적극적인 편이다. 고졸 선수인



송교창

유현준

송교창은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에 2016년도 2학기에 입학해 현재 4학년 졸업 학기 수업을 듣고 있다. 한양대를 중퇴한 유현준은 스포츠경영학과 3학년 과정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19~2020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시간 여유가 생기자 이들은 학업에 더 집

중할 수 있게 됐다.

KCC 관계자는 “송교창, 유현준은 시즌을 치를 때도 틈틈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들어왔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수업에 잘 참여해 학교 측 반응도 좋았다”고 귀띔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송교창은 학점 평균이 B, 유현준은 B플러스다. 현역선수들 중에선 우수한 성적이다.

이 관계자는 “군복무 연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업에 관심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이를 잘 활용해 박사 학위를 따 은퇴 후 교수나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다. 선수생활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